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4호 【루계 제25407호】 주체105(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주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우주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차게 매진하고있는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리병철동지, 김정식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개발을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이다.

이번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작업시간을 200s로 하고 발동기연소실의 연소특성, 각종 변들과 조종계통들의 동작정확성, 구조믿음성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대출력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케트를 확고히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지구관측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수준에서 발사할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결사관철한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실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개발과 리용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이 관철되여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전례없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시험성과에 토대하여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내으로써 적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꿋꿋이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소식을 안겨주자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당부를 받아안은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이 세계를 굽어보며 보란듯이 솟구쳐올라 광활한 우주에로 또다시 진입할 력사의 순간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와 강위력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북방의 동해기슭에 어린 항일의 녀장군의 불멸의 자욱

집 삼 혁 명 사 적 지 를 찾 아 서

우리가 탄 위제용승용차가 경성군 소재지에 이른것은 지난 8월 28일이였다.

평양을 떠날 때에는 무더위가 한창이였지만 이곳 날씨는 서늘하였다.

해감내를 머금은 바다바람이 시원히 불어왔다. 려장을 풀어놓은 우리가 제일먼저 찾기로 한 곳은 집삼혁명사적지였다.

시원하게 뻗은 읍지구의 포장도로를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경쾌해졌다.

동행한 군의 일군은 이번 총정의 200일전투의 나날에 이 도로를 새로 포장하였다고 하면서 군의 자랑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였다.

10여리가량 달리니 집삼혁명사적지였다.

푸르른 바다, 기슭에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흰갈기, 그우에서는 물면을 스칠듯 갈매기들이 날아예고 있었다.

바다가에 위치한 혁명사적지를 멋지게 쌓은 방과제가 파도로부터 지켜내고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이 방과제 역시 70일전투의 나날에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쌓은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도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정성껏 관리하고있는 경성군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산뜻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강사 리일화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청년절을 맞는 오늘 벌써 몇차례나 참관자들에게 강의를 하였다는 그였다.

우리는 혁명사적비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해설에 앞서 강사는 오늘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집삼혁명사적지를 찾아주신 25돐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였다.

듣고보니 정말 8월 28일은 온 나라가 청년관으로 들끓이는 명절인 동시에 집삼땅에서는 력사적인 현지지도기념일도 겸한 뜻깊은 날이였다.

주체80(1991)년 8월 28일, 제정되여 처음으로 맞는 청년절의 기쁨속에 온 나라가 경축의 분위기로 흥성이던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도멀리 북방의 동해기슭 이곳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집삼마을에 어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력사의 자취를 더듬어보시였으리라.

우리는 강사와 함께 혁명사적비의 내용을 읽으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지니시고 건국의 높은 뜻을 꽃피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은 언제 한번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수령님을 받드는 사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시였습니다.》

해방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처럼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친위전사가 되시여 수령님의 건국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였다.

조국강토에 민주건국의 노래 드높던 주체36(1947)년 9월 13일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은 되였지만 좀처럼 펴이지 못하고있는 어민들의 생활을 두고 걱정하시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시려고 당시 외진 어촌이였던 집삼마을을 찾으시였다.

해방의 환희에 어기 북방의 어촌도 활기 넘쳤는데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것으로 하여 집삼땅은 더욱 설레이였다.

알을 다루어 달려오는 바다가사람들의 해풍에 거칠어진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두들 건국사업에 얼마나 수고하는가고,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포구로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물을 손질하는 마을사람들과 어울리시여 일손을 도와주시면서 마을에 배를 가지고있는 집은 몇집이나 되는가, 또 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잡이를 하는가를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원래 집삼마을에는 자기 배를 가진 사람은 얼마 없고 기의나 왜놈선주의 착취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왔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배를 무어보려고 했지만 밑천이 모자라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가 열한집이 힘을 모아 배를 무어가지고 고기잡이를 시작했는데 개인배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씀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이 공동으로 낸 돈액수며 한달 평균 고기잡는량, 그 분배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원래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하는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 하면 성수도 나고 그 성과도 큰 법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어촌경리협동화방침과 그 우월성에 대하여 해설해주시고 일본놈들이 마사놓고간 배들을 다 수리해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인민들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우물터에 다가갔다.

우물터는 정성껏 꾸려져있었다. 강사의 말이 이 우물은 한여름철에도 마르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력사의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다가에서 살고있는 이 고장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지 넘려되시여 우물을 찾으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손수 드레박으로 떠올리신 물맛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다가의 우물인데 물맛이 참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어디에 가나 산좋고 물좋고 바다도 좋으니 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를 강사는 우물로부터 얼마 떨어진 사적터에로 이끌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흥성을 높이 올리신 력사의 사적터.

손에 싸창을 틀어쥐시고 바다바람에 옷고름을 날리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강사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득히 펼쳐진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안아보고 그려보시던 조국의 바다인가.

세차게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으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부터 늘 보고싶어하고 그리워한탕인지 조국의 바다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이때 곁에 있던 마을사람들이 어려움도 잊고 김정숙동지께서는 5리밖에 있는 염전도 단방에 쏘아 맞구멍을 내신다는데 오늘 어기에 오셨던 기념으로 사격솜씨를 보여달라고 청을 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가고 하시며 기념이라기보다 우리모두 장군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성전에 떨쳐나서자는 의미에서 쏘자고 하시면서 바다가에 있는 바위를 목표로 사격하시였다.

지금도 그 바위에는 그날의 총탄자욱이 그대로 남아있어 김정숙동지의 높으신 뜻을 전해주고있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떠나시면서 오늘은 바다에 나간 어부들을 다 만나보지 못하고 가는데 후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였다.

불멸의 자욱을 더듬으며 우리는 도래굴이의 포장도로를 따라 사연깊은 권인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무로 만든 팔이 달린 권인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강사가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다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또다시 집삼마을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부들을 만나시기 위해 곧바로 포구로 나가시였다.

그때 마침 바다기슭에서는 어부들이 금방 바다에 나갔다 들어온 배를 권인기로 끌어올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그들에게 수고들 한다고 하시며 허물없이 권인기 한복판체를 잡으시고 배를 끌어올리시였다.

수수한 무명옷자락을 날리시며 김정숙동지께서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돛배를 끌어올리는 어부들을 도와 몸소 권인기를 돌리실 때 모두가 감격에 겨워 눈금을 적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부들과 배를 끌어올리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힘들게 배를 끌어올리지만 장차 나라의 공업이 발전하면 이런 일도 다 기계로 하게 될것이라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끌어올린 배에는 가재미와 이면수를 비롯해서 물고기들이 넘쳐나게 실려있었다.

이것을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물고기를 날마다 이렇게 잡는가고 물으시였다.

어부들은 배임이다싶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있는데 어떤 때는 배가 작아서 더 잡지 못하기때문에 앞으로 큰 배를 한척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전국사업에 이바지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여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 바다의 주인이 되였으니 우리모두 장군님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퇴멍든 어깨우에 갖은 고역다 겪어져야 했던 이 고장 사람들의 원한서린 이야기를 들으시며 일제가 남긴 략탈의 흔적을 헤아려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평선멀리를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답고 귀중한 조국을 찾으시기 위해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아직도 저 바다건너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있고 나라의 절반땅에는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다고 하시며 불타는 적개심을 안으시고 멀리 떨어져있는 바위를 목표로 떨적의 총성을 또다시 울리시였다.

이렇게 집삼마을을 두차례 찾으시여 공동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확증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사실을 어버이수령님께 상세히 보고드리시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전부터 무르익혀오시던 어촌경리의 협동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다음날인 9월 25일 염분진을 찾으시여 수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에 따라 염분포구에서 처음으로 수산합작사가 조직되였고 그후 집삼마을에도 수산합작사가 나왔다.

강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생각은 력사의 그날에서 떠날줄 몰랐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영광의 땅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세월은 69번째 년륜을 새겨가고있다.

오늘도 력력히 어려온다.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그날의 숭고한 뜻이.

우물터, 권인기, 사적터…

그 어느 뜻깊은 사적물을 보아도 그날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생생히 안겨오고 끝없이 밀려드는 동해의 파도도 그이의 그 말씀 전해주려고 기슭을 치는듯싶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김정숙동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숭고한 념원은 이 땅우에 그 얼마나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고 있는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생각을 긍정해주듯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바다기슭에 펼쳐졌다.

야영의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소년단원들이 여기 집삼혁명사적지를 돌아본 다음 즐거운 춤바다를 펼쳤던것이다.

함경북도의 곳곳에서 온 소년단원들이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함뿍 어려있었다.

숨길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행복한 모습들.

그 옛날 세명의 장수가 모여 왜적을 물리칠 의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이름도 집삼이라 불리우던 이곳이 오늘은 백두산3대장군을 모신 영광의 땅 집삼으로 그 이름 널리 전해지고 있기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력사의 고장으로 자랑넘쳐있는것이다.

우리는 잊지 못할 날들의 증견자마냥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절썩, 처절썩—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못 잊어 푸른 바다도 기슭을 치며 은구슬을 뿌리고있었다.

세월은 흘러가도 더욱더 빛날 집삼땅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을 마음속깊이 간직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철혁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개막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17일 베네수엘라의 마르가리따섬에서 개막되였다.

《개발을 위한 평화, 자주권, 련대성》의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120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 고위대표들,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제1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인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회의개막을 선언하고 지난 4년간 쁠럭불가담운동의 활동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를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의 연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17일 베네수엘라에서 개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은 지난 55년간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세계건설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 세계의 변혁과정에 의의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이 걸어온 장구한 로정에는 운동창시자들과 그 리념실현에 공헌한 지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깊이 새겨져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자주력량과의 대결에서 치명적타격을 받고 쇠퇴몰락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자주적인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세계도처에서 《색갈혁명》과 같은 정치적동란과 군사적충돌, 분쟁이 격화되고 피난민사태와 같은 인도주의적참사들이 확대되고있으며 그 주되는 피해자는 대다수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이다.

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을 망라하고있고 거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가지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이 국제무대에서 응당한 지위와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몇몇 안되는 렬강들의 전횡과 횡포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지 못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략자산들과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년중 그칠새 없이 벌리고있는 미국의 불장난소동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먹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핵공갈에 굴복하여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존엄을 지키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의의 핵보검으로 부정의의 핵봉둥이를 찍어버릴 전략적결단을 내리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림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이고 진상이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와 평화적우주개발을 겁고들며 그 무슨 《위협》과 《도발》에 대하여 떠들고있는 미국의 궤변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그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만복한 위반이고 내정간섭이며 타당한 법률적근거도 없는 강도적론리이다.

우리 공화국은 보병총을 들고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싸우던 1950년대의 조선이 아니며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은 핵강국, 군사대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무궁무진한 힘을 똑바로 보고 자중, 자숙하여야 하며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 허황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주,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우리 인민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나는 이 기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굴의 정신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로 솟구쳐오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화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운동의 지위, 역할강화와 관련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견해와 립장에 대하여 언급하고저 한다.

첫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인류공동의 념원이며 지향인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반제자주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라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민주주의》와 《반테로전》을 방패로 내들고 감행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랑면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고 자주적립장을 고수해나가야 한다.

둘째로, 쁠럭불가담운동은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반전평화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의 하나이며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세계각지에서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개별적인 운동성원국들에 집단적으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운동적인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성원국들사이의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단결과 협조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부정의가 《정의》로 둔갑하여 진리를 짓밟고있는것이 강대국중심의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이며 다른 나라들을 분렬약화시키고 약한 나라들부터 집어삼키는것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벗기고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는 쁠럭불가담나라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으며 그 힘은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할 때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운동공동의 리념밑에 단결하고 남남협조의 기치밑에 협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운동의 조직력과 행동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운동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옹호대변하는 방향에서 의장국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분야별상급회의들과 뉴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하여 그 실천적행동능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운동안에 조직되여있는 인권에 관한 사업그루빠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안의 운동소그루빠를 비롯한 부문별사업그루빠들의 운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것이 운동의 행동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업적을 받들어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건설을 위한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세계자주화와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당의 명령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우고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건설공법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드리였다.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하여 조선청년들의 자력자강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귀중한 재보이다.

당 및 국가표창수여모임들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전용남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전용남, 전춘길, 김복순, 김은식, 김순철, 로성철, 홍은화, 오수향, 송경수, 리련화, 손명철, 황병삼, 최룡, 방영근에게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한영림, 남영태, 김순정, 김구현이 수여받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조성남, 라광호, 지봉향, 최룡근, 홍철우, 함인철, 송혁철, 남향순, 리충혁, 김성국, 김강철, 윤복남, 김주환, 박대섭, 서길석, 김룡성에게 수여되였다.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학철, 장은식, 김정철, 김국철, 리우호, 박철성, 김영훈, 방유성, 리은정, 박봉남, 최은성, 김성준, 기인국, 김정민, 리영일, 김경일, 강철준, 김동호, 리평석, 최성국, 문철, 최원철이,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안은철, 현학철, 리철이, 전명일, 최광철, 강성길, 리순철, 홍귀련, 김수철, 김광철, 김금철, 전별, 조선숙, 한정철, 류호삼, 리성호, 전명일, 림영철, 김영송, 리창혁, 김우철, 강정수, 한중림, 박명진, 박광철이 수여받았다.

김명호, 김영만에게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가 수여되였다.

또한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기념메달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을 많은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수여받았다.

모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발전소를 찾으시고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한 청년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인을 놀래우는 대규모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이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일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기적창조의 묘술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의 땐 앞장에서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박 봉 주 총 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철강재증산으로 들끓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증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황철의 로동계급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줄 철강재를 최단기간내에 생산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리는 청년선재직장, 카스발생로직장, 강철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정형과 철강재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였다.

협의회에서는 황철에서 이룩한 주체화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며 환강을 규격별로 생산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철강재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철광석을 원만히 보장하며 압연물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생산정상화와 강종을 늘이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이에 앞서 총리는 농업과학원과수학연구소를 현지에서 료해하고 연구소를 개건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해당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는 자력자강의 창조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우리 식 아크릴산공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여

순천땅에 주체적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는 자력자강의 창조물이 일떠섰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설비에 의거하는 아크릴산공업이 창설되고 질좋은 아크릴계칠감과 테라코렘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자랑찬 현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은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 8월의 현지지도야말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에 길이 빛날 사변이라고 소리높이 격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소문없이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아크릴계칠감공정조감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화학공업성 책임일군이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첫 아크릴산을 생산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하나의 새로운 공업이 창설되였다고 하시며 온 구내가 환해지도록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아직은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성과를 두고 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연구개발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던 령도의 그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던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감자재들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바로 그날 지붕재로 쓰이는 색철판의 칠감으로는 물론 건물의 외장재로 널리 리용되는 칠감을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그 말씀을 전달받으며 해당 부문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유훈을 아직 관철하지 못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에 적극 이바지하지 못하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주체103(2014)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위한 기술준비사업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료해하시고 설계를 제기일에 완성할데 대하여서와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새 공정을 일떠세울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화학공업성의 일군들은 우리 식의 칠감생산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바로 그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오늘의 자랑찬 성과인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손길아래 태어난 아크릴산공업의 력사를 감회깊이 되새기며 일군들은 우리 원수님께 칠감생산에 리용되는 기본원료들을 국내의 화학공장들에서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서도 성수가 나서 말씀드리였다.

국산화된 칠감생산공정이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일군들의 해설을 긍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테라코렘생산공정도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아크릴산으로 칠감을 생산하는것만 알고있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테라코렘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그 리용범위를 더 잘 알게 되였고 이렇게 그 생산공정도 꾸리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을 위하여 바치신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신듯 소문없이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우리의 원료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공업이 기본이라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현지지도의 로정이 이어질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더더욱 커갔다.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과학자가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칠감의 절반이상이 아크릴계칠감이지만 많은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설비를 그대로 들여다 칠감을 생산하고있었다. 특히 아크릴산합성공정에서 폭발위험성이 큰것으로 하여 그 종합자동화체계와 프로그람은 통채로 들여다 리용하는것이 보편적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당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공장에 내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모든 자동화체계를 우리 식으로 설계한데 이어 그 핵심설비들도 우리의 기술제안대로 제작하고 시운전에서까지 단번성공함으로써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력사에 종지부를 찍고야말았다.

화면에 현시된 생산공정들을 일별하시며 과학자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 몇개 나라의 독점물을 우리 과학자들이 해낸것은 정말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과학기술의 일대 사변이라고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고 하시며 보배공장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장에 모시고 기쁨을 드린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정녕 분에 넘친 감사까지 주시니 그 순간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감격과 흥분은 저 하늘끝에라도 닿은듯싶었다.

련이어 공장의 여러곳을 기쁨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것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케 하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화학공업이 나아갈 새로운 발전의 길을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행도로 오늘은 그 첫걸음과도 같은 아크릴산공업의 창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기쁨에 넘쳐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를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에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새로운 높이에 올라설 주체화학공업의 새로운 면모가 금시 눈앞에 어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 이곳 순천지구의 화학기지에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원종장으로 될 석탄가스화에 의한 대규모의 메타놀생산공정이 일떠서고 함흥과 남흥 등 화학공업기지들에서 우리의 화학제품들이 쏟아져나올 희한한 래일을 그려보며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마음속격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주체적화학공업발전의 새로운 장은 이 땅우에 반드시 펼쳐지고야말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력사의 그날이 전하는 이야기

전문가들의 감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합조종실의 PLC조종반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한 과학자가 PLC조종장치에 교류접촉기대신 무접점접촉기를 리용하였다고 말씀드리자 우리 원수님께서는 대뜸 고체계전기를 썼다고 긍정해주시였다.

순간 과학자는 놀라운 나머지 탄성을 지를번 하였다. 세계적으로 무접점접촉기를 쓰는것이 일반적인 례이지만 그 실현방식이 여러가지여서 해당 전문가들도 세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장치를 썼는지 잘 알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핏 스쳐지나시는 그 순간조차 무접점접촉기의 가장 발전된 방식인 고체계전기를 알아보시였던것이다.

아크릴산합성공정을 지나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문득 한옆에 떨어져있는 원료탕크를 가리키시며 탕크의 두께와 생산시 작업압력과 안전압력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구체적인 수자를 들으시고나서 그만하면 된다고 긍정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공장일군은 속으로 감탄했다.

지금까지 공장에 온 숱한 일군들이 그옆을 지나쳤지만 키껏 무슨 탕크인가 물었지 그 안정상절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순간순간이 감탄과 놀라움의 련속이였다. 아크릴계칠감제품전본전시대앞에서는 우리말과 수자를 배합하여 표기한것을 보시고 국제적인 색표기법을 써야 한다시며 손수 실례까지 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전문가들도 탄복했다.

과연 그이께서 지니신 다방면적인 지식세계의 끝은 어디인지.

몸소 잡아주신 기념사진촬영장소

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시고 아크릴산합성탑앞을 다시 지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기념사진촬영을 어디서 하려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여 공정도들에 대한 해설부터 들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다가 기념사진촬영을 하자고 약속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한 일군이 공정도들을 설치한 과학기술보급실마당에서 하였으면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과학자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아크릴산합성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몸소 기념사진촬영장소까지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고귀한 산물인 아크릴산합성탑을 배경으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일군들도,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도 고마움과 감사의 격정을 터치였다.

아크릴산공업창설의 오늘을 위해 바친 고심어린 탐구와 불같은 헌신의 그 모든 날과 날들이 그 한장의 뜻깊은 기념사진과 더불어 력사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본사기자

무한한 우리 과학기술의 힘

단번성공!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은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다.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자료조차 부족하였던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개발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에 도달한 첨단을 한걸음에 뛰여넘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였다.

정일철동무를 비롯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이 류량측정오차를 실시간으로 판정한데 기초하여 폭발현상을 예측방지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완성하였다. 특히 수천개의 전자요소들로 구성된 폭발구역감시조종체계, 분산형조종체계, 비상정지보호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서 구축하였다.

김화식동무를 비롯한 화학공업성의 일군들과 남흥화학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량에 달하는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의 핵심을 이루는 산화반응기와 급랭기, 혼합기 등 설비, 장치들의 설계 및 제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는 자랑을 떨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인 김영일동무와 공업기술연구소, 설계실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합리적인 설계방안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련이어 받아들이며 생산공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완성하였다.

탐구의 길은 멀고 험해 때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 같은 극한의 고비에서도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존엄을 걸고 지식과 열정만이 아닌 피와 땀,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의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하는 눈부신 쾌승이 이룩되였다.

시운전에서 단번성공한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화학공업성,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공정운영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의 원인을 주체적립장에서 하나하나 분석해나갔다.

산화반응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제작하고 조종프로그람들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한 남흥화학설계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과학기술전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철리를 뼈에 새긴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존방식과 틀을 단호히 깨버리고 공정운영도 대담하게 우리 식으로 해나가기 위한 투쟁의 불을 지피였다.

이들은 랭각수흐름량을 이전보다 2.5배이상으로 늘이고 순환가스를 쓰지 않으면서도 아크릴산생산량을 근 1.5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독특한 방안을 찾아낸데 이어 그 도입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종지부

기어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생산공정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정신적강자들의 완강한 두뇌전, 실력전앞에 막혔던 길도 열리고 첨단분야의 비밀도 하나하나 밝혀지고야말았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의 나날 이들은 공정운영과 생산활성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의 창조방식으로 훌륭히 해결하고 끝끝내 산화반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100%부하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아크릴산생산공정이 몇개 나라들만의 독점물로 되여오던것에 확고한 종지부를 찍었다.

본사기자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맨 앞장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리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하여 우리 련합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지금 우리 련합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불타는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아크릴계칠감과 주체철생산 등 높이 세운 총정의 200일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앞당겨 성취하며 촉매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수만t능력의 새로운 제품생산공정들을 건설하여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겠다.

특히 당이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따라 5개년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인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받들어 우리의 화학공업을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건설하며 원유에 의존하는 생산공정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석탄가스화에 의한 공업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카바이드에 의한 생산공정보다 전력소비가 1/5~1/4밖에 안되며 년산 수십만t능력의 메타놀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겠다. 하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에서 비날론과 아닐론, 수지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겠다.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나날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보듯이 아무 일이나 중도반단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끝장을 볼 때까지 땐 앞장에서 줄기차게 내밀어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영일

국산화열풍으로 열어제낀 비약의 지름길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국산화실현을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보장의 중핵적인 문제로 내세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뼈에 새기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의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설비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시작부터가 기술전, 두뇌전이기에 앞서 사상전이였다. 아직은 해당 설비들에 대한 자료와 설계조차 없는 형편에서 보통설비도 아니고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화학공업부문의 첨단설비들을 자체로, 그것도 짧은 기일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한다는것은 종전방식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지금형편에서 첨단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나라의 설비를 일식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잠소리에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필승의 신심으로 백배해진 자강력으로 대답해나섰다.

내각과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리철호, 류두현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분출시켜 설비제작전투를 추호의 동요없이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설계가 진척되는데 맞게 이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부분품 및 부속품가공의 정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기사들인 김철순, 리상준, 리성근동무들과 기능공들인 전기석, 백천복, 전인철, 김종환동무들이 설비제작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힘으로 풀어나가며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였다.

특히 화학기계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독특한 가공방법들을 련속 창안도입하면서 설비국산화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였다.

종전방식으로는 소재가공과정에 생기는 주름과 균렬현상을 방지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한 분공장장 정창수동무는 새로운 가공방법을 창안하여 대담하게 받아들이였다. 형태의 밑부분을 개방하고 압력을 최대한 고르롭게 할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여 70여개에 달하는 경판들을 기술적특성에 맞게 제작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책임기사 함성광동무와 리종철, 한호정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콤퓨터를 리용하여 제관과 볼반작업의 정확성을 확고히 보장할 때 작업반장 강철동무와 고급기능공들이 2 000여개에 달하는 판들에 대한 용접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정광운, 김성일, 분석공 김영순, 시험공들인 장영민, 리길영동무들과 설계를 맡은 박광민, 조영희동무들도 설비국산화과정을 통하여 조선사람의 슬기와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 일념안고 첨단돌파전의 불길높이 어려운 과제수행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강문길동무를 비롯한 화학공업성의 일군들과 남흥화학설계연구소의 량은철, 안영태동무들이 시공지도와 설계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으며 정안남도당위원회의 힘있는 방조밑에 수많은 건설자들이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과 함께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현대화이자 큰 국산화임을 심장으로 자각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걸음마다 박차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131건의 기술혁신 및 합리화안들을 창안도입하고 마침내 80여종에 100여대에 달하는 설비들을 국산화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나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이런 확고한 관점과 견결한 투쟁기풍을 지니고 국산화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오늘도 필승의 신심에 넘쳐 창조와 비약의 한길을 따라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순성

▷세계적수준의◁ 아크릴계칠감과 테라코렘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세계적수준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에서 지금 각종 아크릴계칠감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있다.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원료들도 우리의것, 우리의 자원으로 보장하고있다.

로장용기마다에 우리의 상표를 단 이 아크릴계칠감들은 그 질 또한 세계적수준인것으로 하여 높은 호평을 받고있다.

수성칠감인 외장제와 내장제는 부착세기와 물견딜성 등이 높아 아주 좋다.

수십가지 색갈의 이 외장제와 내장제는 이미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에서 다량 쓰이여 그 질이 충분히 확증되였을뿐만아니라 이제 려명거리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게 된다.

유성칠감은 각종 금속 등을 도색하는데 그저그만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색갈의 광택있는 유성칠감들도 우리 식의 첫 지하전동차와 로선멸, 용도멸에 따르는 렬차들의 도장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낳은 빛나는 창조물들인 뜨락또르와 자동차, 농기계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완성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는 테라코렘은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또 하나의 튼튼한 과학기술적담보로 된다.

지금 이곳에서는 전국적인 년간 산림조성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테라코렘을 짧은 시일에 생산해내고있다.

우리의 원료로 만드는것으로 하여 봄, 가을은 물론 사시장철 수십억그루의 나무심기에 쓰이게 될 테라코렘을 마음먹은대로 방방 생산보장할수 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테라코렘은 토양속의 수분보존률과 물흡수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 나무사활률을 거의 100%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무의 생육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물질도 합리적으로 배합하면서 테라코렘의 질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시) 북부전선으로!

장 명 길

화산의 폭발인가 용암의 흐름인가
우리 당 부름에 피끓는
천만의 심장들이 웨친다
북부전선으로!
대재앙의 홍수가 휩쓴 땅우에
장엄한 불의 대하가 격랑친다
북부전선으로!

삼지연과 세포천역
려명거리전투장에서 영웅신화를 떨치던
강철의 정예사단들과 돌격대들이
당이 정한 침로따라 일제히 내닫는다
북부전선으로!

상원과 순천
강선과 김철의 경쟁도표들이
북부를 향해 붉은 줄을 내뻗친다
세멘트와 강재를 만재한 렬차들이
최대급행으로 질풍친다
북부전선으로!

북부전선! 이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붉은 화살표를 그으시며 가리킨
200일전투의 주타격전선!
당중앙뜨락에서 피줄처럼 뻗어간
이 나라 길과 길들의 리정표!

폭풍처럼, 불달린 화야처럼
번개치는 일손들이 걸음들이
흐르는 시간에도 불을 달아
낮과 밤의 계선을 지워버린
거대한 인민사수, 인민복무의 최전방이여

당중앙이 벽을 울리면
온 나라가 떨쳐나 지구를 울리는
일심단결! 이 거대한 힘으로
군민대단결! 이 무한한 위력으로
기어이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만고의 항쟁사가 어린
두만강 푸른 물결우에
아름다운 만복의 무지개 비끼게 하리

전쟁의 참화와 자연재해가
그칠새 없는 이 행성우에
방랑의 무리, 불행의 눈물
막을수 없는 홍수처럼 끝없이 흐르건만

재난속에서
시련속에서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나가는
조선의 모습, 조선의 기상
자본주의는 지어내지도 흉내내지도 못하리

오, 이 나라 북방의 하늘가에서
온 누리에 울려퍼질
사회주의 만세, 로동당 만세의
힘찬 서곡인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든
우리 당의 인민사랑행, 멸사복무행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오직 그 한방향을 엄숙히 가리키며
우리 당은 부른다
북부전선으로!
천만이 심장으로 화답한다
모든것을 북부전선으로!

(시) 신념의 기둥

류 금 석

집도 가산도 다 떠내려간
혹심한 재난의 땅에서
뭇뭇이 버티고 일어선 인민이
심장처럼 안고 사는 웨침이다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신다!

생사기로의 그 순간
수령님들 초상화를 목숨처럼 부여안고
불덩이같이 터치던 웨침이다
끝지에 혈육을 잃고 나앉은
그 어린 가슴에서도
맑은 샘처럼 솟구치던 말이다

횡포한 태홍수의 검은 갈기가
집집의 기둥들은 뽑아던졌어도
허물수도 흔들수도 없는
신념의 기둥이 마음속에 서있었기에
절망의 천길나락을 박차고
희망의 기슭으로 솟구쳐오른 불사신들

사태와 감탕에
모든것이 묻혀버렸어도
원수님의 자애론 미소를
생의 빛발로 안고 사는 이들이
어찌 운명의 길을 잃을수 있으랴
서까래 하나 건질것 없는 폐허에
길을 열 삽 한자루 남은것 없어도
맨손으로 흙산을 헐고
치마폭에 돌을 싸들고
평양으로 이어진 길을
한치한치 열어가는 불굴의 모습들이여

격전장에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목메여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인민이 당한 재난을 두고
아픔에 잠 못 이루신 어버이생각에
산악같이 일떠선 아들딸들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쉬불들고 달린다
불같은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
하늘도 이기는 힘을 떨치는
북부전선은 그리움의 전역
전화위복의 기적을 떨치는 신념의 전장

거친 물살을 헤가르고
길없는 길을 열며 와닿은
사랑과 정을 한가득 받아안고
재난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던
그들이 흘린 뜨거운것은
심장의 불이였다
순정의 샘이였다

순결한 그 마음과 마음들에
자애로운 원수님의 영상이 빛난다
잃은것보다 더 좋은 생활이 약동하며 흐를
그 태일을 밝게 비쳐주는
우리 운명의 태양이

열백번 홍수가 덮친다 하라
천층만층 먹구름이 쌓인다 하라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는 이 땅엔
언제나 희망넘친 새날만이 밝아라
우리 마음의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리라

오, 신념의 기둥, 삶의 기둥이
마음속에 억척으로 서있는 인민은
설사 지구가 깨진다 해도
소리치며 보란듯이 일어서리라
천만년 영원할 사회주의 큰집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
김정은원수님이 계신다!

(시) 인민사랑의 전역에 승전포성 울린다

류 동 호

이 땅 북변의 한끝
재난의 폭우가 휩쓸어간
가슴찢는 폐허우에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성스런 전역이 펼쳐졌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은 없기에
전화위복의 작전도를 펼치신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엄혹한 대재앙속에서도
눈물도 비관도 없이 일떠선 인민을
한품에 모두 안으시고
우리 어버이 내리신 중대결단

모든 힘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군민대련합작전으로
행복의 거리, 인민의 집을 세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 그것은 인민사랑의 전쟁!
사생결단의 전쟁!
집을 잃은 인민이
한지에서 겨울을 맞게 할수 없다 하신
불같은 그 정에 달아오른 가슴들이
무섭게 솟구쳐 산악같이 일떠선
절사의 전장!

두만강전역에선 벌써 들려온다
군민대단결의 힘이 우뢰치는 소리
천지개벽의 새봄이 태동하는 소리
위대한 수령님들 자욱어린 두만강연안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치리라

사랑하는 인민의 가슴을 덮었던
재난의 먹구름을 가셔주며
따스한 해빛을 뿌리시는 우리 장군
태양의 품에는 한지가 없고
내 나라 뜨락엔 겨울이 없다

세계는 보리라
횡포한 자연의 재앙을
행운으로 만드는 기적을
인민멸사복무를 당풍으로 삼은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손길로 폐허우에 안아올린
황홀한 무릉도원을

겨울보다 먼저
만복의 새봄을 부르는 격전의 뇌성
새집들이기쁨을 안고 목메여 터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로 터져오르리라
아, 두만강전역에 승전포성 울린다!

주체사상신봉자들 격정 토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탁월한 선군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만군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드미트리 꼬스펜꼬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오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이 강한것은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기때문이다.

그들의 영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은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반제반미대결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쏭코리 바로떠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은 조선의 발전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지난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에 비해 평양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정면한 근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들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수령이 위대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강의하고 굳센 인민대중이 있기에 이렇듯 눈부신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상과 신념이 굳건하고 위대한 조선인민의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비젠데르 자인 인디아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힘있는 무기로 하여 조선인민은 모든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여왔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있었기때문이다.

력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앞길에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졌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보급사업에 더욱 헌신하겠다.

【조선중앙통신】

인생의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로학자들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로학자들의 생이 더욱더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든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인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최동룡과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황신률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든 생일상까지 받아안은 로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복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이역땅에서 태여난 최동룡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년간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여러 전공과목을 개척하고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을뿐아니라 지리학분야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해방전 빈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나라잃은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황신률도 조국을 찾아주시고 배움의 희망을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충정의 일념으로 혁명적수령관을 체질화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 제끗한 량심을 바치였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수록한 수십종의 교과서와 도서들을 집필함으로써 대학생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로학자들과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북부피해복구전선 힘있게 지원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전국각지의 근로자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일군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약품과 천막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다.

북변땅의 인민들이 하루빨리 안착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마음안고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혁명력사사전문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북부전선에 지원하였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조국땅 그 어디서나 높이 말휘되고있는 속에 남산병원에서는 피해복구용자재들과 50여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생활필수품들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주었다.

북부피해복구전투가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는것을 명심한 민주조선사, 만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성을 다해 많은 물자들과 식료품을 마련하였다.

평안남도 평성시, 개천시, 희창군, 청원군에서는 식량과 솜옷, 부엌세간 등 갖가지 지원물자들을 보내줌으로써 피해를 입은 북변땅 인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였다.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당의 은덕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황해남도의 근로자들은 친부모, 친형제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많은 식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지역 인민들이 복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안변군, 김화군,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문평제련소를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군과 단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지성이 어린 밀가루, 사탕가루, 기름, 일용품 등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인민중시사상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서 궐기모임 련일 진행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호응하는 궐기모임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랑독된 다음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이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고 전당, 전군, 전민을 총동원함에 대한 중대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인민사랑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의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로 만난을 헤쳐나가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픔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천내리, 고무산세멘트공장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에 새로운 위훈창조로 화답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북구건설에서 제일 긴요한것은 세멘트이라고 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북부전역에서 새 마을, 새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게 하는데 필요한 세멘트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진화력발전소, 서두수발전소에서 진행된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 피해복구전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소들의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는 한편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감으로써 북부전선과 북구자재생산기지들에 필요한 전기를 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생산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이 울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를 안고 제남, 고원탄광 종업원들도 궐기모임들을 가지였다.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불사신마냥 떨쳐일어나 굴함없는 복구전투를 벌리고있는 피해지역 인민들과 한전호에 서있는 심정으로 더 많은 석탄을 캐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별, 주별, 월별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막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200일전투기록장에 새 기적,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새겨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 등의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북부전역에서 승전포성이 울릴 때까지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갈 로동계급의 불같은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갈 충정의 결의들이 청진철도국, 함흥객화차대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표명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철도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피해복구전투장들에 긴급물동들을 우선적으로 수송하는 원칙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짜고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신천군 새날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한kg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천산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된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를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그 어떤 대재앙도, 그 어떤 난국도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면서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웅적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호프생산에서 최고수확년도 돌파

량 강 도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에서는 호프농사도 잘하여야 합니다.》

량강도의 명산물인 호프꽃따기가 한창이다.

땅에 닿을듯 휘늘어진 줄기마다 호프꽃들이 주렁진 포전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호뭇한 결실을 이룩한 기쁨을 안고 호프꽃따기를 신바람나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올해에 어느해보다 1.7배의 호프를 수확하여 계획을 16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갑산호프농장 제3작업반에서는 호프농사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백두산기슭의 운흥강하류에 자리잡은 운흥호프농장에서 생산된 호프는 그 질이 아주 높아 유명한 대동강맥주의 원료로 되고있다.

올해 량강도에서는 호프농사에 많은 품을 넣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과학농법으로 호프초기생육을 보장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보장에 우선적인 힘을 넣었다.

호프농사의 본보기단위인 운흥호프농장이 높은 실적을 내였다.

지배인 오현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파린산석회비료를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 날라다가 치고 질좋은 거름을 냈으며 많은 량의 먹대도 교체하면서 호프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하였다. 그리고 년산 수백t능력의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건조장과 생물처리장을 보수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호프비배관리를 깐지게 하여 호뭇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호프산지들의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인민의 희열과 랑만이 터져오르던 평양대동강맥주축전장을 그려보며 잘된 호프를 수확하기 위한 전투를 본때있게 벌리고있다.

호프꽃을 제철에 따는것이 중요한것만큼 호프산지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호프꽃따기와 호프꽃말리기, 압착, 포장 등 모든 공정을 긴밀히 짜고들면서 매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게 된 기쁨을 안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호프꽃을 조금도 허실없이 제철에 와닥닥 수확하기 위하여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실천적모범으로

운전군 관해협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독고천동무는 초급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고있다. 작업반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그는 늘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올해기철에도 그는 지난해보다 많은 품을 베여들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이른아침부터 골만을 타고앉아 작업반원들을 이끌어나갔다.

작업반장의 이신작칙의 모범과 남다른 헌신성으로 하여 오늘 작업반은 알곡생산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튼튼히 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농장의 앞선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은 숙

독자의 편지

《그 진정에 눈굽이 젖습니다》

저는 중구역 경림동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영예군인입니다.

지난 기간 저의 가정은 고마운 사람들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속에는 서성공업대학 교원 리덕범동무도 있습니다. 제가 그를 알게 된것은 10년전 9월 그가 경림합숙앞에서 저의 안해를 도와 우리 집에까지 무거운 짐을 들어다준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덕범동무는 제가 30년간을 침상에 누워있는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였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혈연의 정을 잇게 되였습니다.

명절날과 생일, 휴식일이면 자식들보다 먼저 집에 찾아와 저를 기쁘게 해주었고 제가 앓을세라,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관심해주며 온갖 지성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깊리고 돈보이는 청년이였습니다.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그가 결혼식날 안해와 함께 저의 집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알고보니 그의 안해도 한 영예군인을 위해 여러해동안이나 지성을 다 바친 훌륭한 녀성이였습니다. 그날 그들부부는 성의껏 마련한 생활용품이며 건강식품들을 저의 가족에게 넘겨주며 앞으로도 계속 영예군인아버지의 아들딸로 살겠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의 소행이 하도 고마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시대앞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새 세대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80이 넘은 오늘까지 영예군인이라는 값높은 부름속에 삶을 빛내이도록 해주고 이렇듯 훌륭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 혁명선배로 떠받들리우도록 해주는 어머니조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역 경림동 19인민반
리 창 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 혈육의 정 넘친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현지에서 전송)

드높은 체육열기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이 체육열기로 들끓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대중체육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장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체육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일군들이 직접 체육경기에 참가하여 대중과 함께 어울려 승부를 겨루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있다.

농장에서는 체육시설들을 잘 꾸리고 체육기재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대중률동체조, 배구, 롱구를 비롯한 체육을 정상화하고있으며 국가적명절과 류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고있다. 특히 제3, 10, 11작업반들이 앞장에 서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분조별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누구나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홍 철 남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도착

장연평 베이징청년보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 모략의 도발적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 광기를 띠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지금 《대북제재》와 병행하여 《인권》문제로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북인권법》시행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것이 《인권》모략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고 광수에 배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적망동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아무리 《북인권》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대며 광기를 부려여도 저들의 도발망동을 합리화할수 없고 《인권》모략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특등사기극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로 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가 더욱 높이 발양되는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이다.

지금 조국의 북변땅에서 벌어지고있는 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세계 그 어디에서 인민을 위한 이런 열렬한 사랑과 무한대한 헌신을 찾아볼수 있는가.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아름다운 대화원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경탄하며 한결같이 우러르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인 우리 공화국에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적패당이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내외의 규탄과 조소만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내돌리고있는것들은 그 어떤 신빙성도 없다. 그것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몇푼의 돈으로 매수하고 부추겨 꾸며낸 터무니없는 날조자료들이다. 부모처자와 고향을 등지고 이름과 경력까지 위조하며 더러운 입방아질로 연명해가는 인간추물들은 거세찬 대하의 흐름속에 기슭으로 밀려난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괴뢰들이 저들도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하고있는 이런 협잡군, 인간오작품들에게 의거하여 《북인권법》시행을 다그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노릇인가.

돈 몇푼을 위해서라면 오물통에도 뛰여들 사기군들을 내세워 벌리는 박근혜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이야말로 특등사기극, 추악한 정치협잡놀음이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흔들어 《체제통일》의 개꿈을 이루어보려는 히스테리적인 망동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무섭게 솟구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불굴의 기상앞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풍지박산나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기적같은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경제봉쇄책동도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역적패당은 내외의 규탄을 받는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한사코 정당화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먹칠을 하는 비렬한 모략책동에 최후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인권》소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제도전복을 위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고질적인 수법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적극 가담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체제통일》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터무니없는 《인권》모략소동으로 남조선에서 동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 일심단결에 쉬를 쓸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괴뢰역적패당의 흉악한 계책이다. 지난 8월 박근혜역도가 그 무슨 《경축사》라는것을 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떠들어대고 그에 따라 괴뢰들이 《북인권법》시행의 목표로 《북정권과 주민의 분리전략실현》을 정한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돌멩이 놓고 탐알이 되여달라고 천날을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이 《체제통일》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권》모략으로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괴뢰들의 《체제통일》책동은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종말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도발이다.

박근혜패당은 《북주민의 삶》이니, 《인권증진》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미화하고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무니없는 모략날조질로 마구 헐뜯는 괴뢰들의 망동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가뜩이나 긴장한 북남관계를 더욱 첨예화시킬뿐이다. 괴뢰들이 꾸며낸 《북인권법》자체가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기 위한것으로서 그의 시행은 곧 우리 공화국에 전쟁을 선포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북인권법》시행놀음에 한사코 매달리는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쟁발발국면에로 거침없이 치닫고있다.

남조선에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마구 끌어들이고있는 박근혜패당이 《북인권법》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는것은 사실상 북침전쟁도발을 작정한자들의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그것은 반드시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 하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괴뢰들에게 있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은 종국적파멸만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대결미치광이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의 총대는 체제대결광신자들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것을 괴뢰패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 주제넘은 입방아질을 그만두어야 하며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인 제 집안뜰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효 진

청와대백치의 히스테리적광기

정의의 혁피성에 혼비백산한 박근혜역도가 매일같이 대결모의판을 벌려놓고 앙탈을 부리고 독설을 내뱉으며 정신없이 허덕비고있다.

해외행각때부터 《긴급대책회의》라는것을 열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니 뭐니 하며 독기를 내뿜은 역도는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높은 제재》와 《모든 수단을 활용한 압박》에 대해 떠들며 미쳐날뛰고있다.

여야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지의 대결》이니, 《기어이 이겨야 한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싸드》의 신속배치를 운운했는가 하면 군부출개들에게는 그 누구를 《끝장낼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들볶아댔다. 보매 미국상전이 핵전략폭격기편대와 핵잠수함 등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하며 허세를 부리자 기광이 나서 날뛰는 꼴이다.

빈깡통과 지렁한 인간은 언제나 소란스럽기마련이지만 역도가 노는 꼴은 정말 눈뜨고 볼수 없다.

박근혜의 망동은 자주의 핵강국으로 무섭게 솟구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에 얼혼이 나가 정신이 몽매불능상태로 된 청와대백치의 히스테리적발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괴뢰역도가 정의의 핵억제력과 부정의의 핵전쟁살인수단을 분간하지 못하고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이 체질화되고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이 생존방식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청와대의 미친 로파가 악의에 차서 내뱉은 《광적인 무모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마구 물고늘어지며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역도의 망동 그자체이다.

박근혜가 감히 누구더러 《자멸의 길을 재촉한다.》고 혀바닥을 나불거리였지만 실지로 파멸을 눈앞에 두고있는것은 독안에서 쭈뗑질하는 이 가련한 악녀이다.

자나깨나 동족을 물어뜯을 흉심에 사로잡혀 아침저녁으로 개처럼 짖어대는 괴뢰역도를 향해 온 겨레는 단호한 징벌의 몽둥이를 추켜들었다.

그런데도 역도가 저승길이 대문밖인 제 처지도 모르고 어이없이 누구를 《끝장낼 각오》에 대해 운운하였으니 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복소를 터칠 정치만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놀아대는 역도의 추태에 세상사람들이 조소를 금치 못하는것은 당연하다.

한갖 버러지만도 못한 박근혜따위가 아무리 대결모의판을 분주히 벌려며 악청을 돋구어도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종국적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는 저들의 가련한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다.

그런즉 괴뢰역도가 그 비루한 잔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면 입부리를 다물고 조용히 물망에 처박혀있는것이 좋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충고이다.

경거망동이 가져올것은 쓰라린 후회뿐이다.

허 영 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와 더불어 재일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하자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보고모임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의 보고모임이 16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를 가슴에 새겨 총련의 바통,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와 더불어 재일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하자!》라는 구호들이 모임장소에 나붙어있었다.

모임에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청중앙과 간또지방 조청전임일군들, 비전임열성자들, 중앙단체, 사업체 조청원들,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교 조청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김용주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사회주의조국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최전성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을 몸소 불러주시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그는 격조높이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불멸의 청년운동총서로 간직하고 조청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재일조선청년운동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갈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이어 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조청일군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최상최대의 영광을 평생 가슴에 새겨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심없이 총련의 바통,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꿋꿋이 이어나가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와 더불어 재일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충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조국인민들의 충정의 200일전투에 발맞추어 100일집중전에서 앞장서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마약범죄 급격히 증가

15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소년들속에서 마약범죄자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10대의 청소년들속에서 마약범죄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해 범죄자수가 2013년에 비해 무려 118%나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20대의 청년들속에서도 마약범죄가 43%나 증가하였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부패타락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사태는 괴뢰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민이 떨쳐나 친미보수패당의 재집권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박근혜패당이 민족의 대경사이며 자랑인 북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 대대적인 《안보위기》론을 고의적으로 류포시키면서 보수재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해보려고 최후발악해나서고있다.

박근혜는 련일 청와대에서 각종 모의판을 벌려놓고 《국가비상사태》니, 《한반도에 전쟁이 리질수도 있다.》느니, 《북과의 대결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며 사회전반에 인위적인 위기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려 날뛰고있다.

《새누리당》것들에게는 《북핵위협》이 눈앞에 들이닥친 조건에서 게과싸움을 중단하고 내무절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몰아대는가 하면 야당세력을 향해서는 《여야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내부리간을 노리는 북의 기도를 차단할수 있다.》는 등 온갖 독설을 서슴지 않고있다.

특히 정향각지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싸드》배치반대투쟁에 대해 《북의 도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방비상태로 로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것》이라느니,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조성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느니 하고 매도하다 못해 강권을 동원하여 진압해보려는 파쑈적기도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에 편승하여 군부깡패들도 《북정권을 끝장낼 각오》와 《보복응징》을 줴쳐대며 호전적광기를 부리는가 하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끌어들인다 어쩐다 하면서 당장 전쟁이 박두하기라도 한듯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심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있다.

박근혜보수패당의 이러한 무분별한 망동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더욱 살벌한 《안보정국》을 조성함으로써 극도에 달한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나 보수재집권의 솔로를 얼어보려는데 그 악랄한 속심이 있다.

사실 보수재집권이야말로 박근혜가 명줄을 걸고있는 최후의 정치적야망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보수패당이 그 어떤것도 서슴지 않을 작오가 되여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기에 게과싸움에 미쳐 사분오렬이 아니라 《구분십렬》되여가는 《새누리당》내부를 어떻게 하나 수습하고 야당세력과의 《대권경쟁》에 뛰여들도록 하기 위해 친박계인물들을 당지도부에 들여앉힌데 이어 미국상전과 공공이를 거듭하면서 유엔에서의 임기도 채 끝나지 않은 반기문을 벌써부터 여당후보로 내세운다 어쩐다 하며 법석 소동을 일으키고있는 박근혜이다.

뿐만아니라 야당세력들의 정치기반확장을 전제하고 서로 분렬리간시키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술책을 다 동원하는가 하면 《제3의 후보》니, 《제3지대창설》이니 하는 모략각본들을 내돌려 민심을 혼란시키고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총발동하여 저들의 악정을 미화분식하고 극단적인 반북적대의식을 고취하면서 지지층의 재결집을 은밀하게 유도하고있다.

박근혜가 노리는것은 이렇듯 온갖 정치협잡과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다음해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가 점찍은 후보를 어떻게 하나 당선시키고 그 대가로 제년이 집권기간 저지른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며 퇴임후 정치적안정을 보장받을뿐아니라 《섭정》을 통해 영원한 《보수의 녀왕》으로 군림해보겠다는것이다.

이야말로 《유신》독재로 장기집권야망을 달성한 애비의 추악한 행적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하지만 20세기도 아닌 오늘의 대명천지에 이런 구시대적이고 오만무례한 기도가 순순히 먹혀들리 만무하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은 박근혜가 의도하는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있으며 보수세력의 재집권은커녕 임기말까지 청와대기둥을 제대로 버티여내겠는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암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역도는 력대 통치배들중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온갖 내우외환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탱하고있으며 이 가련한 《식물대통령》의 통치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도의 정치적무능과 부정부패, 동족대결과 친미굴종으로 이 땅을 인간생지옥, 중세기적암흑지대로 전락시킨 박근혜역도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화산처럼 분출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충견이 되여 핵전쟁살인장비인 《싸드》배치까지 무모하게 강행하면서 《한》반도전체를 외세의 핵대결장으로 섬겨바치는 만고역적을 청와대에서 당장 몰아내자는것이 민심의 불같은 웨침이다.

박근혜에게 지지표를 던졌던 사람들모두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던지겠다고 버르는 판에 과연 누가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져주겠는가.

결국 박근혜패당이 《비상사태》니, 《위기》니 하는것은 친미보수세력들자신에게 닥쳐온 피할수 없는 파멸이고 준엄한 심판이며 비참한 종말일뿐이다.

제년이 몰아온 파국적사태앞에서 극도로 당황망조한 박근혜가 《국론분렬》이란 있을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악을 쓰고있지만 이것은 반박근혜투쟁기세가 드높은 온 국민에게 자갈을 물리고 진보민주세력을 정치적으로 박해, 탄압하며 각계각층의 정당한 대중투쟁을 총칼로 탄압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러한 독재와 탄압의 칼날에 밀려 박근혜패당의 권력독점기도를 용납한다면 이 땅에는 지금보다 더욱 엄청난 민생위기, 안보위기, 전쟁위기가 닥쳐들게 될것은 명백하다.

우리 민중은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여 오늘과 같은 재난과 불행의 세월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친미보수패당을 완전히 대장하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느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서있다.

외세의 비호속에 이 땅에 군림해온 파쑈와 독재의 아성들을 과감히 들어내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웅위한 흐름을 이어온 우리 민중은 다 썩어문드러진 《유신》의 뿌리에 기대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박근혜보수《정권》과의 투쟁에서 두려움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민족사의 당당한 주인인 각계층 민중은 각성된 인민의 힘과 분노한 민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재집권기도를 실현해보려는 박근혜패당에게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남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박근혜패당의 위험천만한 재집권흉계를 옳게 꿰뚫어보고 대중적인 반박근혜, 반미투쟁의 불길로써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하며 이러한 정의로운 실천에서 민심의 절대적지지를 성취하여야 한다.

정세는 첨예하고 복잡해도 승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의 편에 있으며 날로 천백배 장성강화되는 민족의 위력은 온갖 내외반통일보수세력을 통째하게 짓뭉개며 이 땅에 자주통일의 광휘로운 아침을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19일

서 울

권력야욕이 빚어낸 무자비한 정치보복전

남조선에서 괴뢰집권자와 리명박역도와의 알륵이 심화되고있는 속에 두 패당이 《국회》의원선거들을 계기로 서로 죽일내기를 했던 사실들이 다시 여론화되고있다.

개는 인사가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새누리당》의 친리계와 친박계는 《국회》의원선거때마다 세력권확장을 노리며 상대측을 거꾸러뜨리기 위해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남조선에서 ２００８년에 있은 제１８대 《국회》의원선거는 《친박계공천학살》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지난 ２００７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당시)에서는 후보 《경선》놀음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리명박과 박근혜가 피의 대결판을 벌렸다.

당시 리명박역도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어느 한 자리에서 《애를 낳아키워봐야 보육과 교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경제전문가》로 추어올리면서 경제분야에 문외한인 박근혜를 깎아내렸다.

박근혜 역시 상대방을 마구 헐뜯으며 사납게 싸웠다. 하지만 끝내 리명박역도에게 패하고 말았다.

두 정치시정배의 운명을 건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기에게 집요하게 도전해나섰던 박근혜역도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공격의 기회를 노리던 리명박은 제１８대 《국회》의원선거후보들을 뽑는 《공천》이 있게 되자 그것을 당내에서 친박계를 몰아내기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았다.

교활한 리명박역도는 촌아낙네같은 박근혜를 얼리기 위해 그가 《국무총리》로 필수 있다는 여론을 슬슬 내돌리면서 역도를 안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친박계를 배제한 독단적인 《공천》계획을 그대로 내밀었다.

결국 당내권력을 장악하고있는 리명박패들의 전횡에 의해 친박계는 후보 《공천》에서 무더기로 떨어졌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 ２４５명중 친리계는 １５０여명인 반면에 친박계는 ４０여명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리명박의 보복이 얼마나 무자비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성이 독같이 오른 박근혜역도가 《밀었댔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 《나도 속고 민중도 속았다.》고 넋두리질을 하며 발버둥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야말로 행차뒤 나발이었다.

하다면 ２０１２년의 제１９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때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친리계에 대한 청와대악녀의 사정없는 복수전이였다.

박근혜역도는 리명박이 저들을 구박하고 못살게 군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박근혜역도는 흠이 없는 인물들은 《게과를 불문하고 포용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선거후보 《공천》에서 공정성을 보일듯이 냄새를 피웠다. 하지만 그것은 친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눅잦히기 위한 술책이였다.

역도는 １차 《공천》에서 당선된 친리계인물들 대부분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들에 배치하였으며 ２차 《공천》에서는 리명박의 측근들인 청와대출신들, 당내의 친리계들 줄줄이 제외시켰다. ３차, ４차 《공천》결과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리명박패들이 《정치적복수》, 《정치테로》라고 치를 떨 정도로 박근혜역도의 앙갚음은 사정이 없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인물이 《칼질의 주인이 친리계에서 친박계로 바뀌였을뿐 ４년전과 너무 흡사한 상황》이라고 평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１９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도 《얼음공주》로 악명높은 박근혜역도에게서는 리명박에게 히리를 금혀야만 했던 《２인자시절》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청와대악녀의 독판치기로 일관된 올해의 제２０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친리계를 비롯한 비박계를 가차없이 제거하는 과정이였다.

박근혜역도가 내세운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리한구는 《공천》기준으로 《정체성》을 운운하며 친박계가 아닌 인물은 거의다 배제하였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친박계만을 위한 《공천》이라고 항의를 표시했으나 친박계배거리들은 오히려 사죄하라고 제편에서 피대를 돋구었다. 이런 속에 리명박역도의 최측근인 리재오까지 《공천》에서 떨어졌다.

리명박과 박근혜역도는 이렇듯 《국회》의원선거때마다 서로 양보없는 피터지는 싸움을 벌렸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도저히 화해할때야 할수 없는 두 정치적적수의 싸움이라고 평하였다.

두 패거리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다음해에 남조선에서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렬해질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권력욕에 환장한 나머지 제편끼리도 마구 물고뜯는 추악한 시정배들이 바로 괴뢰보수패당이다.

예로부터 싸움 잘하는 놈 매맞아죽는다고 하였다.

벌써부터 남조선항간에서는 박근혜가 퇴임후 정치보복에 나선 리명박패거리들의 모함에 걸려 불우한 인생을 보낼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소문들이 나돌고있다.

실지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리재오가 박근혜《정권》은 너무 부패하고 낡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저들이 나서겠다고 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게과싸움에 미친자들의 운명이란 달리 될수 없는 법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특등모략군의 파렴치한 보신술

최근 남조선에서 부정부패의 창초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목을 베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괴뢰집권자가 직권람용, 자금횡령, 탈세 등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도맡아 저지른 범죄자 우병우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박근혜역도는 우병우를 해임시킨것이 아니라 이자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특별감찰판을 수사하게 하였다. 특별감찰판이 감찰내용을 루출하는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다는것이다. 이것이 우병우사건에로 돌린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이자를 극구 싸고돌기 위한 청와대안방주인의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언론들은 특별감찰판이 거꾸로 검찰수사대상이 된것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것으로서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의 관박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부정추문사건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모략과 술책으로 여론의 초점을 왕청같은데로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는것은 청와대안방주인특유의 보신술이다.

한때 남조선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놓고보자.

지난 ２０１４년 １１월 아무런 공직도 없는 정윤회라는자가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좌우지하고 남조선정치판을 마음대로 주물러댄 심로 놀라운 부정추문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윤회는 한때 박근혜와 매우 가까왔던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사위라고 한다. 박근혜는 정윤회와 깨끗치 못한 관계를 가지고있는데 일본의 한 언론은 역도가 《세월》호침몰사건이 일어난 당시 ７시간동안 자리를 비운것은 바로 정윤회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보도하였다. 정윤회는 박근혜와의 이런 남다른 관계를 리용하여 남조선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사문제까지 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당시 남조선언론들과 각계는 이 사건을 《충격적인 국정롱락》, 《특대형국정쿠데타》로 락인하면서 정윤회와 그의 배후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박근혜역도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였다.

그러니 청와대암독사가 가만있을리 만무했다.

박근혜역도는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폭로한 청와대문건이 루출된데 대해 《국기문란행위》라고 아단치면서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고아댔다. 결국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관련한 사태는 풍딴지같이 정윤회의 《국정개입》내용을 담은 문건을 누가 내돌렸는가 하는것을 조사하는데로 흘러갔다. 다시말하여 《정윤회국정개입사건》조사가 청와대문건루출사건조사로 뒤바뀌였다.

정윤회의 불같은 독촉에 따라 괴뢰검찰은 정윤회에 대한 조사는 걸어치우고 청와대문건루출혐의가 있다고 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을 지독스럽게 조사하면서 닥달질하였다. 결국 그 경찰관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정윤회국정개입사건》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박근혜역도는 극도의 위기에서 간신히 헤여나게 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우병우사건은 신통히도 닮았다고 할수 있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도 다름바 없다. 박근혜역도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괴뢰검찰총장 채동욱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여론을 내돌려 그를 사퇴시키고 수사선을 차단하였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박근혜역도의 보신술은 이처럼 비렬하고 파렴치하다.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가리우고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역도의 파렴치한 보신술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치를 떨고있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선군조선은 빈말을 모른다

우리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은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선군조선의 위용을 또다시 만방에 높이 떨치였다.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이 최종적으로 검토확인됨으로써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있다. VOA방송, AFP통신 등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은 이번 핵시험의 의미는 조선이 핵탄두를 미싸일에 탑재하여 미국을 타격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는것을 미국에 보여준데 있다, 미국의 대조선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조선이 지금까지 진행한 시험들을 통하여 핵타격수단완성의 기본요소들인 핵폭탄, 기폭장치, 운반수단개발을 완성한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조선은 이번 핵시험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수록 보다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전하였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시하고계신다, 조선의 5차 핵시험은 정치적측면에서 볼 때 론리적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사력강화와 경제발전 이렇게 두 기둥에 의거하시는데 여기서 핵무장화는 기본구성요소이다, 조선에 있어서 핵시험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전체 민족을 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라는 글을 실었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이다.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보도를 권전적으로 해오던 서방언론들이 우리의 놀라운 군사적위력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보도하고있는것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10년전 미제국주의자들의 핵선제공격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핵개발에 성공하고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선 때로부터 우리의 핵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소리를 넘물처럼 외워왔다. 우리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고 핵무력의 질적강화를 선포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그런 헛나발을 불어댔다. 최근년간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력사가 응축되여있는 열병식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입비뚤어진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무장장비들을 가장 물로 매도하였다. 우리의 눈부신 국력강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려는 적대세력들에게 우리는 주체조선의 군사적위력이 어떠한가를 몸서리치게 보여주었다.

올해초 우리 공화국은 미제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첫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뒤이어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제단분리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 핵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했다. 이미 선포한 핵탄두탐재가 가능한 탄도로케트발사시험선언에 따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의 이번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은 그 절정이다. 우리의 련이은 실제적조치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과 강인탕대한 배짱의 일대 과시로 된다.

전문가들은 조선의 지난 시기 로케트발사에 대해 미국은 잰한 수고를 한다고 비웃었으나 그것은 팔도까지 타격할수 있는 무기로 등장하였으며 미국이 조선이 열병식에 내놓은 미싸일이 가짜라고 선전하였으나 그 《가짜》가 역시 대기권재돌입까지 성공하고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로 등장하였다, 미국이 조선이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로케트시험도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그 《가짜》가 련이은 시험에서 성공하고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의 핵 및 미싸일개발속도가 상식을 초월하는것으로 하여 미국이 미처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우리의 국방공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선군조선은 빈말을 모른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우리는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으로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마스락거리기만 해도 불마당질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담보로 되였다.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군정치의 덕이다.

오늘 미국은 우리의 핵보유를 악의에 차서 시비질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실현의 최대의 장애》라느니, 우리의 《핵과 탄도미싸일계획은 지역과 미국,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고있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위협행위에 자위적조치로 대응하는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절대로 침해할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이고 실제적인 핵위협의 근원, 실체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갈을 집요하게 일삼아왔다. 세계도처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미국이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불안과 공포를 들씌워왔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로 되였다.

미국은 핵공갈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에 벌써 남조선을 1 000여개의 핵무기가 꽉 들어찬 세계적인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새 세기에 들어와 집권한 부쉬는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핵무력사용까지도 시사하였다. 결국 부쉬는 부실하게 놀아대다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

오바마는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굴복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하여 류례없는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였으며 우리의 면전에서 《제도붕괴》와 《수뇌부제거》를 노린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오바마도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다가 우리 공화국을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만들었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초강경으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기질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이는만큼 우리의 핵공격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고있다.

미국은 반미대결전에 나선 우리 인민의 의지를 알수 없다. 미국식셈법으로써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감히 잴수 없다.

미국이 군사적압박과 제재봉쇄로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겠다는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다.

돌이켜보면 세계제패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지난 세기 50년대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우리 인민이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다.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질식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심히 오산하였다.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설움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우리 인민은 력사상 류례없는 봉쇄속에서도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배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지금 시대를 주름잡으며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제재봉쇄속에서 건축물들이 어떻게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지 모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진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쑤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조미사이의 힘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확고부동한 립장을 이미 내외에 힘있게 천명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 행성우에 지주와 선군, 사회주의등대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조만간에 아메리카합중국을 위시한 피많은 《자유세계》는 필연적으로 자주화의 거세찬 물결에 떠밀려 최후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바빠맞은 미국은 핵몽둥이를 휘둘러 우리의 의지를 흔들고 단호한 결심을 꺾어보려는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핵전쟁을 포함한 그 무엇도 서슴지 않으려 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목터지게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가 핵전쟁광신자로서의 흉물스러운 몰골을 드러내고있다.

오바마일당은 발작적으로 최후의 도박을 놓고있다. 우리의 자위적핵능력을 《초토화》해버리려고 《정밀공습작전》계획이라는 핵전쟁각본까지 짜놓고 이 땅에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과 《붕괴》타령을 공공연히 웨치면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어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우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남강도 미제가 핵전쟁으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길이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하겠다고 덤벼들면 미국을 핵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타격할수 있다는것을 이미 실물로써 보여주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비대한 핵항공모함이나 핵동력잠수함 등이 투입된 적지역의 항구들을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로케트들로 무자비하게 타격하여 그 모든것들을 극히 짧은 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을수 있다.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은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

침략자들의 핵전쟁책동에 정의의 핵으로 대응하려는것은 선군조선의 불변의 의지이다.

선군조선은 빈말을 모른다.

리 현 도

로씨야단체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지지

우리의 성공적인 핵탄두폭발시험을 지지하여 로씨야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가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씨야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는 지난 9일 조선의 새로운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에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도발과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무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접하고있으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조선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서방언론들은 다른 나라들에 조선이 단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이 마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있는듯이 선전하고있지만 그것이 거짓선전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서방언론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매수되였다.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형제적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이 사회주의전위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적무장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력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한자니아정부가 10일 나라의 남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천연가스가 풍부한 음트와라주와 린디주를 국가전력망에 련결시키기 위한 송전망부설공사와 2개의 변전소건설이 진행되게 된다. 이것은 나라에 풍부한 천연가스를 리용한 전력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주민들이 그 덕을 보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개발에 관한 동아프리카나라정부간기구 특별수뇌자회의가 13일 소말리아의 모가디쇼에서 진행되였다.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등 지역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 정부관리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소말리아의 평화과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소말리아의 사회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며 당면하여 곧 있게 될 선거가 이 나라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보호노력

캄보쟈에서 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5일 정부는 서부지역에 있는 섬과 호수, 산을 자연보호구로 정하였으며 그 면적은 총 2만 7 941㎢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나라에는 45개의 자연보호구들이 있다고 한다.

산불피해방지노력

인도네시아에서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15일 정부는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서부지역 산불진화작업에 20여대의 비행기와 2만 2 100여명의 군대와 경찰, 소방대원들을 동원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나라의 260개소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타번지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꾸바외무상
미국의 대조선제재압박소동 반대

꾸바외무상 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레라가 9일 국내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압박소동을 반대하였다. 그는 조선의 핵탄두폭발시험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가 추가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론거로 될수 없다, 제재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꾸바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미국의 반꾸바제재조치는 정당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말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조선에 대한 제재는 중지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성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 배격

베네수엘라외무성이 11일 웨브싸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반꾸바 경제, 금융봉쇄책동을 강력히 배격하였다.

글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범죄적이고 일방적이며 치외법권적인 행위로 락인하였다.

꾸바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대한 베네수엘라정부의 지지와 련대성을 강조하면서 글은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반꾸바봉쇄를 철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로씨야국방상
세계질서를 《미국식질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

로씨야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가 최근 한 발언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서방세력들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얼마전 미국방장관이 로씨야가 세계질서의 기초를 파괴하고있다고 떠들어댄것과 관련하여 그는 바로 미국이 서방과 함께 보스니아와 꼬쏘보로부터 시작하여 이라크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현존 세계질서의 기초를 시종일관 파괴하여왔다고 단죄하였다.

미국과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해체하기 위한 작전을 벌린 때부터 로씨야는 종국적으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초래하게 될 후과에 대해 루차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매번 우리가 보게 되는것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같은 나라들에서의 강탈행위이다, 펜타곤이 이러한 전략을 바꿀 때가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세계질서를 《미국식질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모든 국가들의 리익을 위한 공정하고 다극적인 세계질서를 유지할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란관리
페르샤만수역에서의 미군무력철수 요구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이 14일 페르샤만수역에서의 미군무력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근 미국이 페르샤만수역에서 이란함선이 미국함선에 도발을 걸고있다고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한갖 기만적인 선전짬빠니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사실상 지역에 대한 미군무력의 주둔은 국제법적근거가 결여된 비법행위이며 지역나라들의 의사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그는 따라서 미군은 지역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수리아정부군진지를 야수적으로 공습

미국이 17일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도발적인 공습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날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이 데이르 알 주르도의 상공에 날아들어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와 전투를 벌리고있는 수리아정부군진지를 목표로 여러차례의 공습을 가하였다.

이 야만적인 공습으로 60여명의 수리아정부군 병사들이 죽고 약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리아정부군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공격은 수리아와 수리아정부군에 대한 위험하고 극악한 침략행위로 되며 미국이 《이슬람교국가》와 기타 테로그루빠들을 지원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테로와 싸운다는 미국의 주장의 허위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필리핀대통령
미군주둔 반대, 미군철수를 주장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가 12일 한 연설에서 민다나오섬에 대한 미군주둔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반테로지원》의 명목으로 필리핀남부의 민다나오섬에 미군이 순회주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필리핀의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있으며 따라서 미군은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필리핀의 마야심대가 심각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정부의 반마약투쟁을 헐뜯고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규탄하였다.

한편 필리핀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테가 최근 자기 나라에서의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는 나라의 남부지역에서의 반란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필리핀에 있는 무력들을 전부 철수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네르기개발의 다각화를 통해 본 오늘의 세계

아랍추장국련방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이다. 원유수출만으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수 있다.

그러나 아랍추장국련방은 최근년간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미 해비침률이 높은 사막에 세계최대의 태양열발전소를 세운 이 나라에서는 수도 아부 다비의 6㎢의 부지에 깨끗한 에네르기로만 운영되게 될 새로운 도시를 일떠세우려 하고있다. 두바이에서는 겨울철에도 흐린 날이 별로 없는 특성을 리용하여 가까운 앞날에 태양열에 의거한 전력생산량을 대폭 늘일 야심적인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10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총전력생산량의 25%를 재생에네르기로 충당하자는것이 아랍추장국련방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판매금의 몫을 36%로 낮추어 원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자는것이다. 아랍추장국련방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원유생산국들인 만협조리사회 성원국들이 원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인 경제구조개혁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달라붙었다. 방대한 유전을 타고앉은 전통적인 원유생산국들에서 여느때없이 활발히 벌어지는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사업은 현시기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정세변화의 여러 측면들을 그대로 투시해주고있다.

우선 급속히 변화되는 세계에네르기구조를 반영하고있다.

에네르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지 않고 살수 없는것처럼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공업도 그 《식량》인 에네르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껏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해온 전통적인 에네르기자원인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제한되여있을뿐더러 갈수록 고갈되고있다.

세계에네르기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말현재 세계원유매장량은 1조 6 690억bbl, 천연가스매장량은 187조 3 000억㎥였다.

지금의 생산수준에서 볼 때 앞으로 원유는 53년간, 천연가스는 56년간 채취할수 있다고 한다.

더이상 화석연료에만 매여달리는것은 근시안적인 방식이다. 특히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효과가스를 방출함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네르기원천을 다각화하고있다. 태양열과 풍력, 지열, 조수력과 같은 재생에네르기개발과 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손꼽히는 에네르기자원수출국이건 수입국이건 너나없이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에 뛰여들고있다.

더 많은 에네르기를 확보하고 에네르기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화석에네르기에 의존해온 현세계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리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각국의 정책수립과 대외관계에서 에네르기문제의 중요성이 커가는것은 현시기 적극화되는 에네르기개발의 다각화가 반영하는 측면이다.

원유는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략자원이지만 그 가격파동은 매우 심하다. 2000년대 초엽에 1bbl당 20US$정도였던 원유가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최고 150US$계선까지 폭등하였다면 올해에 들어와서는 30US$계선으로 떨어졌다.

원유가격의 불안정성은 그 수출국들은 물론 수입국들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저애를 주고있다.

천연가스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몇해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에 가스분쟁이 터졌다. 이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스수요량의 40%를 로씨야가스에 의존하고있으며 그 가스의 80%를 우크라이나령토를 지나간 수송관을 통해 공급받는 유럽나라들은 가스공급이 중단된 며칠사이에 대혼란속에 빠졌었다.

에네르기안전은 사회정치적안정을 보장하는 문제로 제기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 되였다. 에네르기수입국들은 믿을만 하고 안전성있는 에네르기를 바라고있다. 때문에 에네르기원천과 수송로의 다각화는 각국들이 에네르기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되고있다.

한편 에네르기수출국들은 안정된 시장확보와 함께 고갈되는 자원에 맞게 에네르기구조의 다각화를 지향하고있다.

에네르기개발의 다각화에는 국제적판도에서 첨예화되는 에네르기쟁탈전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에네르기자원을 노린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령토분쟁의 파만수가 에네르기매장지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다. 한 나라안에서도 에네르기자원을 놓고 종족간, 교파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다. 생산지와 함께 수송통로의 확보가 쟁탈전의 쌍벽을 이루면서 에네르기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의 양상은 보다 다양해지고 첨예화되고있다.

원유생산지인 중동의 정세는 늘 불안정하고 까스뻬해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의 마찰은 심화되고있다. 하기에 서방의 한 인사는 만일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중대한 지정학적문제들을 본다면 에네르기가 핵심으로 된다는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에네르기독점을 통해 세계경제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

미중앙정보국의 한 보고서에는 《미국은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은 종래의 항공기와 무기, 곡물의 독점이 아니라 에네르기자원의 통수권을 쥐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대국들을 군사력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미국의 세계경영철학으로 될것이다.》라고 씌여져있다.

새 세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은 중동의 원유자원을 노린 침략전쟁, 략탈전쟁이였다. 미국이 《천조》의 보따리를 내흔들고 《안전》보장을 떠들면서 중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재편성, 재배치에 주되는 힘을 넣는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오늘날 미국의 에네르기독점전략은 지난 시기와 다르다. 그것은 새로운 에네르기시장독점전략이다. 새로운 에네르기시장이란 혈암유와 혈암가스시장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혈암유에비량은 원유보다 13배나 더 많다. 지금의 소비수준으로 보면 300년간 쓸수 있다고 한다. 혈암유, 혈암가스의 채취기술은 새로운 에네르기시장독점을 통한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이 크게 의지하는 기본수단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무진장한 에네르기자원을 깔고있다고 해도 채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것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 기술이 없는 나라는 부득불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 미국이 혈암유와 혈암가스채취기술을 독점하고 봉쇄책동에 매달리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최근시기 원유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는것은 혈암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세계최대의 원유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이 된 미국이 국제원유시장을 장악할 속심밑에 전통적인 원유생산국들을 대상으로 가격전쟁을 벌리는데 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원유공급은 과잉상태이며 가격은 최저상태이다. 이런 속에서도 쌍방은 원유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있다. 여기서 후퇴하는 경우 저들의 오랜 원유수입국들을 잃고 시장을 미국에 빼앗길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는 전통적인 원유생산국들은 생산량을 끝까지 고수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고있다.

현시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에네르기를 떠나 경제발전, 사회의 안정적발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에네르기를 개발하는것도 리용하는것도 인간이다. 에네르기자원쟁탈전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의 실정, 자기의 조건에 맞는 에네르기전략을 세우고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성공의 열쇠는 해당 나라 인민의 손에 쥐여져있다.

배 금 희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준비책동

무장장비증강책동

미국이 해외침략목적달성을 위한 무장장비증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UPI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미공군을 위해 《C-130J 슈퍼 허클리즈》수송기 5대를 제작하게 된다. 2020년 4월까지로 예정되는 수송기제작에 막대한 자금이 랑진되게 된다고 한다.

해군무력강화책동, 미싸일발사시험 감행

미국이 침략적인 해군무력강화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은 집중적인 시험과정을 거친 버지니아급잠수함인 《일리노이스》호가 미해군에 인수되였다고 전하였다.

《일리노이스》호는 8척의 버지니아급 《블로크 3》잠수함들중 3번째 잠수함으로서 10월에 취역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미해군이 최근 대서양수역에서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2 D-5》의 발사시험을 감행하였다.

군사적지원책동

미국이 14일 이스라엘과 방대한 규모의 군사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19회계년도부터 10년동안에 미국은 380억US$어치의 군사적지원을 이스라엘에 주게 된다고 한다.

인류를 위협하는 지카비루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가 늘어나고있다.

13일 이 나라 보건성은 싱가포르를 려행하고 돌아온 임신부를 포함한 2명의 녀성이 지카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웰남에서

웰남의 호지명시에서 최근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가 발생하였다. 15일 이 나라 보건성은 도이췰란드국적을 가진 40살난 녀성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인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수는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지카비루스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6일 이 나라 보건성은 최근 에만도 17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인 지카비루스감염증환자수는 275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타이에서

타이에서 최근 지카비루스가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0일 이 나라 보건성은 방콕크에서 21명이 지카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152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